



웹진 2호

2015년 6월 23일 발행 / 4.16declaration@gmail.com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6월 20일 풀뿌리토론 워크숍 후기
- 두인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선언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들의 모임 남미옥님
주현엄마 김정해님
진보네트워크센터 바리님

함께 읽을거리

6월 20일 풀뿌리 토론 워크숍 자료집
인권선언을 제안하는 언론 기고 모음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웹진 2호 ::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발간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6.20 풀뿌리토론 워크숍 후기

- 두인 (인권선언 추진위원, 인권운동공간 '활')

http://416act.net/decl_archive/3251

[인권선언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들의 모임 남미옥님

http://416act.net/decl_archive/3257

:: 주현엄마 김정해님

http://416act.net/decl_archive/3277

:: 진보네트워크센터 바리님

http://416act.net/decl_archive/3280

[함께 읽을거리]

:: 6월 20일 풀뿌리토론 워크숍 자료집

http://416act.net/decl_archive/3198

:: 인권선언 제안 리플렛

http://416act.net/decl_archive/3061

:: 인권선언 제안 언론기고 모음

<프레스리안> 아토피로 소도시 왔더니 핵발전소 옆! '안전'이란? - 기고 :: 4.16 인권선언을 제안하는 이유 (박희정, 작가기록단 작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147>

<뉴스민> 세월호 진실 규명, 그 '언젠가'를 앞당기기 위하여 - 기고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제안합니다 (아요, 인권운동연대)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5005&thread=21r05>

<한겨레21> 사라진 이들의 권리 (심보선 시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690.html

<인권오름> 인권선언운동,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 (정경원,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기념사업회 사무국장)

<http://hr-oreum.net/article.php?id=3028>

<오마이뉴스> '각자도생'에 지친 우리, 대한민국 주인 맞나요 - 사람이 먼저임을 외치는 4.16인권선언, 당신의 동참을 권유합니다 (유성애, 오마이뉴스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120586

[웹진 2호]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6.20 풀뿌리토론 워크숍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22, 2015

두인 / 인권선언 추진위원, 인권운동공간 '활'

비다. 두 명의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 다음날, 비가 내린다. 쏟아지는 비로 지독한 가뭄이 이제는 좀 해결이 될까 싶기도 했다. 2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어딘가에는 넘치는 물을 쓸 수 없다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국가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가두려고 하는 국가. 작년 4월 16일부터 계속 묻게 되는 질문이다. 국가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국가에 대한 비판은 어쩌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짧게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죄다 하고 있는 국가를 생각하면 또 말해 뭐하나 싶다. 그리고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면죄부가 생각났다. 작년 4월 16일부터 그렇게 잊지 않겠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304명의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생존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어디론가 숨겨주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하게 됐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오늘은 416인권선언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풀뿌리토론 촉진자 워크숍이 있는 날이다. 비 오는 날씨였지만 약속한 사람들이 모였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워크숍이 진행되는 전교조 서울지부 강당이 조금씩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 6월 20일, 풀뿌리토론 워크숍이 열린 전교조 서울지부 입구

하지만 첫 번째 질문 앞에서 다시 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참사를 떠올릴 때의 감정과 느낌을 묻는 질문이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소식을 뉴스속보로 보았을 때부터, 멍하니 TV앞을 떠날 수 없었던 그 날부터 복잡했던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게 됐다. 분노와 좌절, 미안함 등 복잡한 감정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오는 날로 이야기하는 이도 있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중 창현엄마의 이야기가 여전히 마음에 남는다. 50년을 뿌리 내리고 굳게 살아오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뽑혀버렸다는 이야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뿌리가 뽑혀 말라비틀어져 가던 나무가 함께 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이제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하길 참 좋았다는 생각과 더 열심히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월호참사 발생 이후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일과 장면을 묻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참 화가 나는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진도체육관 이야기를 꺼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구조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묵을 숙소. 그 지치고 아픈 몸과 마음이 잠시 쉴 수 있어야 할 그 숙소가 한 체육관이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존중이 고작 저 정도인가.'라는 분노와 자책이 있었다. 팽목항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진도체육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으로 피해자가족들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는 창현엄마의 이야기에서 더 화가 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앞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질문의 답변들과 같은 일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들이 있어야겠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앞서 희생자와 피해자, 그

리고 가족들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국가나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닌 당사자들이 원하는 만큼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같은 조 사람들과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보상 문제였다. 세월호참사가 있고 나서 3일째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언론에서 여행자보험 이야기를 꺼내면서 보상이야기,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후 지금까지 언론과 정부는 계속해서 보상금을 이야기하면서 유가족을 조롱하고 있다.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화해가 성립한 것이라는 문구를 교묘히 집어넣은 국가. 보상을 받으면 진상규명도 포기하고, 책임자 처벌도 포기하고, 다른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자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보상금과 바꾸려는 국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모두 인권선언에 담겨야 할 내용이다.

조별 토론이 끝난 후에는 오늘 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 우리 조는 '돈보다! 진상규명!'을 힘차게 외쳤다. 그렇게 오늘 워크샵은 재밌게 마무리가 되었다. 시간이 다소 부족해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 전체회의 토론에서!

이제 416인권선언 추진단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1시 수운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는 전체회의가 된다면 416인권선언이 더 신명나게 만들어질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전체회의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하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7월 4일까지 추진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하면 좋겠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과 만날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시간이 이어질지 벌써 심쿵이다!!



▲ 6월 20일 풀뿌리토론 워크숍에는 4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TAG • #웹진, #620워크숍, #후기

[웹진 2호] 추진단 인터뷰 4.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들의 모임 남미옥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22, 2015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세기강양(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 양천 시민들의 모임)의 남미옥입니다. 목동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2. 인권선언을 함께하시게 된 과정은 어떠신가요?

스무살부터 일을 했었어요. 그때가 80년대인데,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걸 옆에서 자주 봤죠. 같이 뭔가를 하지는 못했구요. 하지만 데모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책도 읽고 뉴스에도 관심 가지면서 나도 언젠가는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이랑 같이 국정원 촛불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혼자 광화문에 나왔어요. 그렇게 혼자 나오다가 어느날 농성장에 앉아있는데 옆에 계시던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어디 살고 있고, 어떤 거 하고 있고 등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랑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소개해줬어요.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세기강양에 들어가게 됐죠. 대화방에 초대됐는데 많은 수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매주 목요일마다 세월호 서명운동도 함께하고 일인시위도 지속하고,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전 오로지 한 마음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유가족 분들 옆에 끝까지 같이 있고 싶다, 무엇이든 그분들 원하는데로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세월호를 평생의 제 화두로 삼고 살아가야겠다 다짐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세기강양)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등. 한참 싸우던 작년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들 바빠지기도 했구요. 그래서 인권선언도 같이 하게 됐어요. 뭐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요. 사실 전 주변에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세월호를 같이 기억하고 이걸 어떻게든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단에 함께하게 됐어요.

최근에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80년 5.18 광주에 대한 소설인데, 딸이 추천해줬어요. 그 책을 읽으며 세월호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립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되게 전파하는 시인데, 독일 시인 마르틴 니컬러의 '그때 내 옆엔 아무도 없었다'는 시가 와닿아요. 언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결국 내 일이잖아요. 같이 해야죠.

3.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요?

지난 5월 1일이었던가요. 유가족 분들이 광화문에 고립되어 있고 경찰들이 우리를 막고 물대포를 쏘던 그 날이요. 그날 원래는 모임 분들과 광화문 농성장에 있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 우리도 안국역 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쪽으로 같이 갔지요. 우왕좌왕, 벽은 막혀있고 갇갇한 상황이었지만 유가족 분들과 함께 밤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밤을 같이 지새는 대학생들을 보았어요. 너무나 희망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4. 인권선언 운동 추진단에 바라는 바

전 4.16 인권선언은 세월호로 시작해서 세월호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세계인권선언문 등 좋은 선언문들이 많잖아요. 지난 번에 선언문 초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갔었는데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제들과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들었어요. 다 맞는 말이지만, 이건 4.16 인권선언이니까 세월호에 집중해서 선언문을 만들었으면 해요.

[웹진 2호] 추진단 인터뷰 5. 주현엄마 김정해 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23, 2015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8반 안주현의 엄마 김정해입니다. 주현이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꿈도 확실했구요. 가수가 꿈은 아니었지만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이모에게 기타를 선물받은 이후부터 틈틈이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아이였죠.

또 주현이는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둘인데, 딸이 있는 사람들이 아쉽지 않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할 정도로 아들들이 참 좋아요. 집에서 잠깐잠깐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현이도 주현이 아빠도 주말에 여행가기 힘들어서 가기 싫다고 했을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참 고마워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빠와 아들이 친한 집이 없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참 열심히 하는 아들이었어요. 너무 예뻐서 핸드폰도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바꿔줬을 정도예요.

최근에 주현이가 중학교 때 썼던 핸드폰에서 기타 연주하는 모습, 사진들을 봤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는데 요즘은 너무 공부하라고 다그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요. 팽목항에 가서도 미안하다는 말 빼고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미안해요.

2. 인권선언을 함께 하시게 된 과정은?

인권은 사람의 권리인데, 우리가 그 동안 시위 현장에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벌레 취급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권선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건 꼭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나는 내 자식을 잃었지만 이후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원탁회의를 할 때 함께 계시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확고해졌어요.

그 동안 제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와 안심이 있었어요. 어디서 사고가 났다고 소식을 들을 때도 우리나라가 OECD국가고 구조를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 큰 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인권선언도 지난 제 모습을 반성하며 참여하게 되었어요.

3. 참사 이후에 있었던 일 중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처음에 저희가 진도에 내려가서 진도체육관에 있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어디로 오냐고 물었어요. 팽목항으로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팽목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때부터였던 거 같아요.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으로 유가족들을 분리시키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24시간이 240시간으로 느껴지던 시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 더 힘들어지는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들을, 유가족들을 통제할 생각만 했던 거죠.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그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말이예요.

4. 인권선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아이들을 잘 키우고 세금을 잘 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참사 나기 전에 주현이 아빠가 주현이에게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면 양반이

고,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주현이 아빠 이야기를 몸으로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권리를 갖고 있고, 누구나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인권선언은 저에게 여러 가지 의미예요. 그 동안 우리가 침해받았던 권리들을 되돌려 놓는 것이기도 하고, 그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회문제에 모른 척했던 것들을 반성하는 것이기도 해요. 누구나 존중받는, 가진 자들만이 대접받는 그런 우리 사회를 바꾸는, 그런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5. 인권선언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를 꼭 꼽는다면 힘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참사를 겪으며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생자에 대한 예우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장례를 치를 때, 교육부에서 나온 분들이 비용문제를 이야기하더라구요. 부모 마음에는 최대한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나온 분들은 너무 비싼 걸로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그 때,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자들의 죽음이 얼마로, 돈으로 설명되고, 돈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희생자에 대한 예우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6. 인권선언 운동 추진단에 바라는 바

간담회를 다니면서 인권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때 만나는 분들이 잊지 않기 위한 행동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해요.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웹진 2호] 추진단 인터뷰 6. 진보네트워크센터 바리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n 23, 2015



1.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는 바리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자유팀에서 활동했어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운동을 하는 곳이구요. 작년 세월호 집회 참여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이나 CCTV 감시 등이 그런 활동이었어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기술 지원 활동도 합니다.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sewolho416.org), 타임라인 '세월호는 왜'(<http://taogi.net/special/sewolho/background/>), 기억과 행동의 416지도(<http://www.candlelights.kr/>)와 같은 것을 제작하기도 했다. IT노조와 함께 '진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알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ewolho416.remember>)도 만들었어요.

2.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인가요? 참사 이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처음 TV에서 봤을 때에는 경악스럽고, 안타깝고, 무기력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올랐어요. 구조된 사람 중 한 분이 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들었다고 했을 때예요. 세월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아왔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권력이, 약자나 소수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억압해온 모습을 본 듯했어요. 이 사건이 우연히 배가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가 지나쳐온 타협이나 불의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었죠. 사회단체에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임감을 느꼈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광화문 세월호광장에 있었던 폭식투쟁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혐오해왔는지, 낙인찍어왔는지 드러나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구요.

3.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을 막는 완고한 흐름이 있어요. 그걸 대표하는 말이 교통사고라는 주장이에요.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 중 하나일 뿐이라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어법이지요. 변화할 필요도 없고 변화하지도 않겠다는 기득권 세력의 의지가 읽혔어요. 그런 부분에 맞설 수 있는 가치가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우연히 당했고 개인적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피해를 사회가 인정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풀어갈 수 있는 화두가 인권이에요. 피해자의 권리, 연대의 권리, 국가의 책임 같은 것들이 세월호 문제를 인권으로 접근할 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4. 작년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 활동을 했는데, 어떤 문제들을 느끼셨는지요?

주로 자유권 문제를 대응했어요. 감시나 집회시위 탄압 등.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경우는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고 대대적인 사이버망명도 있었어요. 통신의 비밀에 대해 새로이 각성한 계기가 됐어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비춘 빛이기도 하구요. 반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굉장히 처참하게 유린되었어요. 요구를 외치지도 못하고 경복궁 북단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청와대는 신성시되었어요. 공권력의 폭력과 모욕도 심각했어요. 최근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소환이 계속되면서 위축되는 분들도 있을 듯해요. 생활인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하거나 집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일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괜히 나갔던 건 아닐까 후회하는 분들은 없을지.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의 힘이었어요.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역사가 만들어져왔어요. 누군가 과거를 반추할 때 위축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인권선언도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면 좋겠어요.

5. 416인권선언은 '안전'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자유와 연관지어 볼 때 풀뿌리토론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솔직히 안전은 최근까지 자유의 대척점에 있었어요. 테러를 막겠다며 인터넷을 감시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국가권력은 안전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안전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자유를 억압해온 것이 전형적인 국가의 통치전략이었죠. 그런데 안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을, 체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있다면,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로서의 안전이 있어요. 알 권리나 발언하고 행동할 자유가 안전과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이 자유권 활동가인 나에게 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국민안전처로 대표되는 안전과,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 자유를 비롯한 인권 보장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계속 필요해요.

6. 416인권선언은 '세월호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출발'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인권선언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세월호 운동에서 중요한 건 진상규명이었어요. 앞으로도 중요하고 특별조사위 활동 등을 통해서도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상규명에서 조금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야 하는지 밝혀야 해요. 그걸 인권선언에 담을 수 있어야 하구요. 참사 이전에 존중받지 못했던 인권이 선언되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된다면 미래를 향한 과제가 나올 듯해요.

6월 20일 풀뿌리토론 워크숍에 참여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가 사건을 애도할 시간조차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애도를 위한 행동이 중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현실이죠.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지겹다고 말하는 흐름. 세월호 이후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요. 안전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해요. 노동자가, 시민이, 학생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애도하기 위해서 행동할 권리가 필요해요.

7.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갈 추진단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건을 기억하거나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나 역시 사건에 대해 굉장히 많이 접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워크숍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 나누며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뻘한 얘기인 듯하면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서로 조금 수줍지만 문제의식이 공유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선언운동은 낯선 운동일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인권/선언이 낯설 수 있죠. 어떻게 풀어나갈지 막막한 분들도 있을 듯하고, 계획도 길다보니 지루할 수도 있구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수많은 토론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을 듯해요. 그래도 나는 인권선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운동은 주로 반대였어요.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인권선언은 인권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안전한 사회,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그려보는 작업이에요. 함께 기운내서 잘해보고 싶어요.

아토피로 소도시 왔더니 핵발전소 옆! '안전'이란?

[기고] 4.16 인권선언을 제안하는 이유

2015.06.11 10:04:20



"사람은 존엄한가?" 누가 내게 물으면,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가?"라고 물으면 나는 대답을 망설일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의 가슴이 그토록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은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이렇게나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목도해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바닥에 뒹구는, 아무리 세상이 망가져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최소한 선마저 모조리 무너져 내린 느낌이라고 할까.

4.16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말들이 터져 나왔던 것은, 그렇기에 한탄이 아니라 의지와 구체적 실천을 담은 선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었다. 4.16 참사가 응집시켜 터뜨린 대한민국의 민낯을 목도한 이들이 고통스러운 성찰을 통해 걷어 올린 가치 하나는 '인권'의 회복과 확장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제안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4.16 참사 이전과 단절하고 다른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존엄을 선언하자는 운동이다. 우리가 빼앗긴 권리,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풀뿌리 토론을 올 한 해 전국적으로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6년 4월 4.16인권선언을 선포하려는 계획이다. 나는 이 인권선언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 '선언'이라는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16 이후 달라질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질문 앞에 '인권'을 고민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을 말하기는 쉽지만 지켜가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시스템을 잘 쌓고 유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의 가치를 수시로 꺼내어 재확인하고 인권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 후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역사에서 목도했다.



▲ 단원고 2학년 7반 교실. ©프레시안(최형락)

단원고 10반 고(故) 김다영 학생의 아버지 김현동 씨는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4.16참사 이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자식들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는 것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이 정작 우리 '사회'는 내 자식들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아갔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돈 앞에서 저울질 당하고, 부패와 비리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부정의를 문제제기할 민주적 소통구조는 작동하지 않고, 그러한 결과 한국은 어디를 가도 안전함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이때 안전함이라는 것은 비단 '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사고에서 구조될 안전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금요일엔 돌아오렴> 경주 북콘서트에서 만난 한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그이는 부산에서 아이의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 대도시가 아닌 경주로 이주해왔다고 말했다. 생협에 가입하고 먹거리와 생활환경을 바꾸니 아이의 아토피는 줄어들었다. 그러던 중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

고가 터졌다. 그이는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의 존재를 '새삼스럽게' 인식했고, 두려움을 느꼈다. '안전'한 곳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핵발전소와 멀지 않은 땅이었던 것이다. 경주에는 핵발전소에 이어 핵 폐기장까지 들어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그이는 반핵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를 마주한 것이다.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밀양을 살다> 기록에 참여하면서 만났던 밀양 주민 구미현 씨의 이야기가 겹쳐서 떠올랐다. 구미현 씨도 병을 고치기 위해 대도시 부산의 삶을 정리하고 밀양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주했다. 깨끗한 밀양의 자연은 구미현 씨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선물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누리던 고작 3년 만에 마을 뒷산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76만5000 볼트의 초거대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하고 드문 사례가 아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곳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한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아주 운이 좋으면 된다. 그런데 그 어느 쪽도 민주적으로 사회시스템이 발전된 사회에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다. 시스템에 기대지 못하고 각자도생하는 것이 장려되는 사회는 이미 '공동체'라 부를 수 없다.

4.16 인권선언은 가장 먼저 '안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것을 요청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이어진 투쟁과 연대의 경험 속에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참사에 대한 인식을 확장했다. '내 아이의 안전'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에 위험을 떠넘기거나 방치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희생을 발생시킨다.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김현동 씨의 말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모두가 안전해지는 길이라는 깨달음이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정의와 인권 같은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이루는 길임을 만나는 이들에게 당부한다. 4.16 인권선언은 그렇게 우리가 결코 물려서서는 안 될 원칙과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 깨닫는 이야기다.

4.16 이후의 달라질 세상은 그 토대를 튼튼하게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4.16인권선언을 향해 가는 풀뿌리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 세월호 참사에 연루되었는지를 촘촘히 밝히기를 바란다. 정치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당연하게 여기거나 외면해왔던 것들을 낫선 것으로 꺼내어 놓고 새롭게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와 권리,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함께 찾고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 참사 앞에서 느꼈던 참담함이 무력감에 머물지 않도록, '잊지 않겠다','달라지겠다'는 약속의 말이 껍데기만이 아닌 알맹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여 '인권'을 이야기하자!

관련기사

- 프레스안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 트위터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 구글 플러스 로그인 페이지 새창이 열립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 그 '언젠가'를 앞당기기 위하여

[기고]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제안합니다

뉴스일자: 2015년06월08일 11시40분

슬픔의 기억, 기억의 고통

얼마 전, 울산박물관에서 열리는 '폼페이'전을 보고 왔다.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역사'로 기록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화산 폭발 당시 죽음을 맞은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석고상에 눈길이 갔다. 죽음의 순간이란 어떤 것일까?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남성, 땅에 엎어진 아이, 밀려드는 화산재를 막기 위해 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 온몸이 뒤틀린 채로 고통스러워하는 개. 비극적인 죽음은 그것을 마주하는 생명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생명에도 쓰라린 슬픔과 공포의 비참함을 안겨준다.



©SAPES

2천 년 전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석고상 형태로 만나면서 차가운 바닷속 세월호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이들이 떠올랐다. 만약 세월호가 인양되어 우리 눈앞에 드러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니 좀처럼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나는 실시간 방송으로 죽음의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였고, 넋을 놓고 한없이 눈물을 흘린 유가족이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리기만 한 방관자였다. 슬퍼했던 고통은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 슬픔을 준다.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하나?

4.16 인권선언 운동을 제안하며

4.16 인권선언 추진위원으로 참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경험의 기억이다. 우리가 빼앗긴 권리,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모여서 말하는 풀뿌리토론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이를 모아서 2016년 4월 416인권선언을 선포하려는 계획이다. 누구나 존엄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존엄을 선언하고 행동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안문

어쩌면 나에게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다. 기억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슬퍼하는 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하지만 416인권선언 제안문을 보면서 지난 1년여 간 세월호 참사의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다시 '인권'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슬픔과 분노로 좌절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존엄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인권선언운동을 만들자는 제안 취지를 보면서 '콜롬비아 어린이 평화 운동'이 떠올랐다. 열두 살이었던 마예를리 산체스(Mayerly Sanchez)는 내전으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콜롬비아에서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납치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어린이들이 직접 힘을 모아 어린이의 권리를 묻는 투표를 하기로 계획한다. 무장단체의 보복을 두려워한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말리기도 했지만, 어린이들은 투표에 앞서 무장단체에 평화롭게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썼고, 무장단체도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투표는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1996년 10월 25일은 하루 동안 콜롬비아 어디에서도 단 한 번의 총소리도 없고, 납치도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날이 되었다. 이러한 투표는 평화와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어린이 참여 평화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 어린이 평화 운동. 사진=<http://worldschildrensprize.org/childrens-peace>

함께 참여하는 행동-인권선언운동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면 '배부른 소리'가 되고, 어린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네가 뭘 아느냐?'고 구박하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다.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지조차 잊기 쉬운 인권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인권선언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해야 할까? 알고 지내던 마을 공부방, 청소년 인권단체(모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기획해 보자고 제안부터 해야겠지.

인권을 선언하는 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4.16 세월호 참사를 통해 느꼈던 슬픔과 미안함이 상처로만 남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운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많이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당신이 있는 공간에서 시작해 보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세월호가 인양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는 그 '언젠가'를 앞당기는 당신과 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당신,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던 당신,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시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416인권선언을 선포합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풀뿌리토론을 열어줄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풀뿌리토론을 1회 열어야 하며,

2회의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 1차 전체회의는 7월 11일(토) 오후 1시, 천도교 수운회관(3호선 안국역)에서 열립니다.

* 2차 전체회의는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모아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7월 4일까지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416인권선언 416act.net

*416인권선언 추진단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풀뿌리토론을 1회 열어야 하며 2회의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 1차 전체회의는 7월 11일(토) 오후 1시, 천도교 수운회관(3호선 안국역)에서 열립니다.

* 2차 전체회의는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모아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7월 4일까지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참달기

노 탕큐!

사라진 이들의 권리

제1065호 2015.06.09

등록 : 2015-06-09 20:55

‘416 인권선언’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416 인권선언’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발의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대의를 표방하고 있다. 오는 6월20일에는 전국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선언의 원칙과 내용에 대해 토론했을 예정이다라고 한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실체

역사적으로 인권선언은 과거의 비참과 단절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담았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봉건적 권력에서 해방된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원리로서 모든 이에게 천부적으로 귀속된 평등과 자유의 권리를 선포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은 전쟁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이 없는 인권과 자유의 존중,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참사 이후의 인권과 안전사회를 구상하는 ‘416 인권선언’은 어떤 점에서 특이점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나

는 어쩔 수 없이 단원고등학교의 교실 풍경을 떠올리게 된다.

단원고 교실을 방문했을 때, 나는 학생 250명, 교사 11명이라는 희생자 수로 환원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선명한 실체와 맞닥뜨렸다. 그것은 다른 어떤 ‘사라진 사람들’ 하나하나의 모습이었다. 책상 하나, 교탁 하나마다 다른 종류의 기억, 이야기, 대화, 사진, 취향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마치 261개의 칼처럼 사라진 사람들의 개별성이 나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다.

나는 생각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사라졌구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구나.’ 동행했던 희곡작가가 내게 말했다. “보통의 교실에선 빈자리가 학교를 떠난 아이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빈자리가 살아남은 아이의 자리네요. 꽃과 과자와 편지가 가득한 저 자리들이 오히려 사라진 아이들의 자리네요. 그렇다면 이곳은 교실이 아니라 묘지가 아닌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곳은 교실도 아니지만 묘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살아남은 이들이 사라진 이들의 죽음을 온전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유가족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 유학 갔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사라진 아이들의 책상과 선생님들의 교탁에는 “돌아오라”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모가 가득했다.

그러므로 ‘416 인권선언’은 일반적인 인권선언, 산 사람과 밝은 미래를 위한 선언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416 인권선언’은 국가폭력과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들을 위한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사라진 이들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의의 희생자였음을, 국가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죄짓감을 통해서만 죽은 이들에 대한 애도가 가능함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인권선언을 다시 쓰는 작업

역사적으로 인권선언은 확장을 통해 재선언되었다. ‘국제인권선언’은 국적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적용돼오던 ‘프랑스 인권선언’을 전세계의 소수자들로 확장한 것이었다. ‘416 인권선언’은 이제 산 자의 인권을 죽은 자의 인권으로 확장하려 한다. 이미 일어난 참사의 진실 규명을 미래의 인간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토대로 다지려 한다.

그러므로 ‘416 인권선언’은 국가폭력과 사회적 재난이라는 ‘특수한’ 사안과 관련한 인권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인권선언의 보편성을 계승하며 다시 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감히 말하건대 ‘416 인권선언’ 제정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 ‘416 인권선언’의 원칙과 내용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민들의 대화와 참여가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심보선 시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권선언운동,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

정경원

트윗

좋아요 0

[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한다. 기억은 행동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매주 공동 게재되는 연재기사가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참사 피해자에게는 슬퍼하고 분노할 권리가

경험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참사 피해자. 2011년 여름,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간 딸아이가 산사태 참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4년. 조금은 안정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슬픔과 분노를 잘 다스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스렸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참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프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책임자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는 좋지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10년 주기로 산사태가 일어났고 우리 아이들이 세 번째 산사태의 피해자였다는 것. 책임자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건축 등 전반을 책임지는 춘천시, 산 관리를 책임지는 강원도. 유족들은 춘천시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참사를 당한 유족들에게는 슬퍼할 권리,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성을 찾으라는 충고는 너무나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진상이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슬퍼하고 분노할 권리가 용인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가슴이 터져 죽을 겁니다.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고 공감해줘야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유족들을 돈 달라고 떼쓰는 부모로 모는 이광준 춘천시장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지만 막막했습니다. 강원도 일간지에 조금씩 나오는 기사 말고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해 산사태 피해가 전국적 규모였음에도 우리는 강원도에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습니다. 책임지라고 주장해야 할 피해자들의 행동도 막았습니다.

인재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춘천시는 입을 틀어막고 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라고 했지만, 강원도민들의 마음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입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치인들과 달리 유족들의 말을 들어주고 안타까움을 공유해줬기에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강원도는 조례제정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던 춘천시장에게는 500원짜리 소송 끝에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춘천시장의 법적 책임은 마무리되었더라도 사회적 정치적 책임은 계속 져야 할 겁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그런다고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사 피해자인 우리가 또 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참사는 어떠했는지 알아보면서 앞선 가족들의 행동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투쟁이 이어졌기에 '대형사고'가 '참사'로 인식되었습니다. 위로금 몇 푼으로 빠르게 정리해오던 것을 특별조례제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된 것입니다. 법, 제도 변화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의 성장입니다. 안전, 참사 피해자, 참사 대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온 것은 피해자 자신들이고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을 공감한 많은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인권선언도 그 변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안전할 권리를 인권이라 인식하는 게 생소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인권을 침해당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참사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 인권은 또 침해당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하던 나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또 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권리는 끊임없이 주장하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크지 않지만 나의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당신,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던 당신,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416인권선언을 선포합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플루리토론을 열어줄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 416인권선언 추진단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플루리토론을 1회 열어야 하며, 2회의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 * 1차 전체회의는 7월 11일(토) 오후 1시, 천도교 수운회관(3호선 인곡역)에서 열립니다.
 - * 2차 전체회의는 플루리토론의 결과를 모아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7월 4일까지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4·16연대 416act.net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추진단 신청은 <http://416act.net/416declaration>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정경원 님은 춘천봉사활동인하대회생자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며, 희생자 유가족입니다.

관련기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관련사이트

- 416인권선언 홈페이지

인쇄 - 오마이뉴스

기사 프린트 페이지

'각자도생'에 지친 우리, 대한민국 주인 맞나요

[4.16인권선언④] 당신의 동참을 권유합니다

15.06.22 16:16최종 업데이트 15.06.23 17:42 | 유성애(416act)

'그 날'은 마침 오랜만의 휴일이었다. 오래 못 본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나는 들떠 있었던 것 같다. 가족들과 만나, 서울 시내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내며 평화롭게 식사를 하던 중 속보가 떴다. 수백명 승객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했다. "엄마, 애들 탄 배가 사고 났는데 전원 구조래요." 부모님께 간략히 알리고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설마하니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으리라고 상상 못 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의 기억이다.

속보가 나오던 순간부터 죽음을 예견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아직 '골든타임'이 남아있었다. 저렇게 큰 배가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떠 있는데, 정부가 해양 경찰과 장비를 총동원했는데... 이름조차 생소한 '에어포켓'에 희망을 걸 만큼, 대다수 국민들은 절박하게 세월호 승객들의 생존과 무사 귀환을 기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 그 날부터 오늘까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안다.

참사 후 1년이 조금 지난 요즘, 메르스 확산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며 세월호 때가 떠오른다는 사람이 많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을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양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일 터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한 최선을 다해 구조했더라면.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던 목포 해경 123 정장의 말이 거짓 아닌 사실이었더라면. '국민 불안' 운운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감염 확산을 막았더라면.

그렇다면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을, 또 아들딸이었을 사람들이 애꿎은 목숨을 잃을 일은 없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불확실한 정보 탓에 서로 감염을 의심하며, 야외 활동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테다.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세월호 때 산산이 조각났고, 그렇게 시작된 불신은 지금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정부 발표를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모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사람이 우선"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두렵다. 재난은 메르스 같은 전염병뿐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 또 대형 사고로 인한 국가기반체계 마비까지를 포함한다. 그야말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셈이다. 멀리갈 것도 없이, 노동자들이 매일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 위험은 늘 존재한다. 세월호 때는, 또 이번에는 운이 좋아 피해갈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다음 주인공이 내가, 혹은 당신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입을 맞춘 듯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권선언이 필요한 건 그래서다. 대형 병원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시되는 사회,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나온다.

주인의 권리를 우리는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국가를 위해 봉사할 공무원들이 주인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헌법 제36조),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으며(제10조), 행복할 권리가 국가로부터 보장되는(제11조) 헌법이 정말로 실현되길 바라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할까.

적어도 국민 한 명 한 명이 '안전할 권리' 만큼은 갖게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그 권리는 누가 거져 주는 것은 아닐 테다. 지난해 말부터 각계 다양한 200여 명 추진위원들이 모여 '4.16 인권선언'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잃은 것과 앞으로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사가 그저 가슴 아팠던 큰 사고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막으려면 반드시 갈무리가 필요하다. 세월호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 지금, 그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에 용기를 내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당신,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던 당신,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416인권선언을 선포합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풀뿌리토론을 열어줄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풀뿌리토론을 1회 열어야 하며,
2회의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 1차 전체회의는 7월 11일(토) 오후 1시, 천도교 수운화관(3호선 안국역)에서 열립니다.

* 2차 전체회의는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모아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7월 4일까지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 4.16인권선언 제안 웹자보 © 4.16연대

○ 편집 | 홍현진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유성애 <오마이뉴스> 기자는 416인권선언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 시민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 2016 OhmyNews

OhmyNews